

건축구조기술사, 우리들의 비상을 꿈꾸며

丁亥年을 맞이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우리회 살림을 맡으면서 여러가지 각오를 말씀드린 바 있으나 원했던 만큼 다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회 각 위원회 및 지회의 활동은 어느 때보다 활발하였고 가시적인 성과들도 많이 얻었음에 대해 여러 임원들과 회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작년에 있었던 우리회 창립30주년 기념행사는 여러 회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아래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었고 또한 우리회의 잠재력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작년의 활동 내용들은 금년 1월에 있었던 정기총회 시 보고 드린 바 있어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동안 미진했던 계획들과 금년 한해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땀이질 하는 자세'로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최근 내진설계 수행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언론 및 방송사의 보도로 인해 "내진설계 안전확인을 위한 지침서"를 건교부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건축구조기술사'라는 구조 전문가에 대해 명쾌한 명시와 인정은 미흡하나 분명 '구조안전'의 확인 주체는 건축법 시행령 91조 ③항의 구조전문가(구조관련 관계전문기술자)여야 한다는 데는 정부 당국자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건축구조기술사'가 의당 구조전문가인데 스스로 '구조전문가는 건축구조기술사이다'라고 주장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주변 환경이 우리를 다소 위축시킴지는 몰라도 구조관련업무의 주역은 우리 건축구조기술사이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대세입니다. 현재 '건축학'과 '건축공학'이 분리된 대학 제도 아래에서 졸업생들이 배출되고 있고 이러한 현실에 따라 관련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뿐 아니라 '건축사협회'에서도 강하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부터는 건축사협회와 우리회 간에 정기적인 모임을 제안하여 '적'이 아닌 '하군'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수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체 300여곳에서 개업, 활동하는 많은 건축사들에게도 수도권이나 광역시처럼 양질의 구조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회와 본회 간에 더욱 유기적인 관계수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개발 중인 실용구조설계 프로그램 보급 또한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사법개정으로 인해 일정 시간의 '계속교육(CPD)'이 의무 사항으로 됨에 따라 회원 여러분들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모르나, 건축구조기술사의 직무교육은 우리회가 대부분 분담하도록 하여 우리회의 정기적인 모임 자체가 교육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가겠습니다.

우리회 홈페이지의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근 그 구성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우리끼리는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고 외부로부터는 신뢰받는 조직으로 인정받기 위해 모든 글들에 대해 실명화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사무실을 운영하고



김종호 우리회 회장
(주)장·민우 구조건설트 대표

있는 소장들과 직원들간의 자유계시판을 통한 불필요한 논쟁들은 우리 구조인들간의 큰 불협화음으로 오해될 수 있고, 동시에 서로를 불신하는 분위기로 잘못 이해될 수 있겠기에 자유계시판의 글 게재도 실명등록 후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내장된 정보들은 조속히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우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들이 회원들과 직접 연결되게 하여 명실상부한 우리회의 본래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 회원님들께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회원들 간에는 서로 칭찬해 주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에서 매사에 최선의 경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어진 일을 처리하다보면 개념의 차이로 인해 각기 다른 결과를 도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수록 서로 이해하고 인정함으로써 제3자로부터의 어떤 오해나 불신을 막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써 설계심의 과정이라던가 설계검토 과정에서 어떤 사안을 지적하실 위치에 있을 때에는 그 개념을 이해해 주고 더 나은 결과는 도출하도록 흐름을 잡아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모든 일들은 항상 그 반대도 성립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상대방과 스스로를 함께 존중하는 건축구조기술사가 되어야 만이 우리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래야만 'FTA' 체결하에서 우리가 더 나은 과실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황금돼지해' 라고들 말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건강하심과 뜻하신 모든 계획들이 모두 다 풍성하게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